

## 안 내

지난번에 ‘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여러분께-한국에서의 수당 및 장례비 신청 절차에 대하여 -’(2005년 11월 30일 판)를 보내드렸습니다만, 그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어서 최신판(2006년 1월 25일)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보내드립니다.

유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수당 및 장례비는 한국어 양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,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, 해당 양식의 ‘기입상의 주의사항’과 별첨2의 3~4페이지 또는 6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의사의 진단서도 한국어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,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, 해당 양식의 ‘기입상의 주의사항’을 참고하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또 의사의 진단서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해 유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상기 내용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므로, 수당 및 장례비를 신청하실 때에는 이번에 보내드린 홍보자료의 해당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